

2018. 04.
Vol.40



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 -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¹⁾

연보라 부연구위원

개요

- 조사명** ▶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 조사목적**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비(非)다문화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하고자 함.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조사대상** ▶ 2011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1,625가구)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 조사항목** ▶ 청소년: 다문화적 특성(언어능력, 이중문화경험, 다문화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개인 특성(신체, 사회·정서·행동, 인지), 환경적 특성(부모와의 관계, 친구, 학교생활, 지역사회 지지망, 진로 결정, 학업 중단 요인, 학습활동)
▶ 학부모: 다문화적 특성(언어능력, 이중문화경험, 다문화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개인 및 환경 특성(신체적·심리적 특성, 가족 특성, 자녀 교육 관련 특성, 자녀 진학·진로 지도 관련 특성, 양육 관련 특성)
▶ 배경 특성: 거주 지역(시/도),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 청소년 성별, 청소년 연령, 부모님 연령, 부모님 교육 수준, 부모님 직업, 부모님 출신 국가, 청소년 학교 진학 상태
- 조사기간** ▶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조사(2025년까지 조사 예정)

1) 본 블루노트 통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도 연구과제인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V-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보고서의 일부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1 분석개요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과의 발달 궤적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1년 1차년도(초4)부터 2016년 6차년도(중3)까지 수집된 자료이며, 비교 집단인 일반청소년의 경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활용하였음.²⁾
-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주요 발달 변인 가운데 일반청소년과 비교가 가능한 변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함.
 - 구체적으로 학습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 삶의 만족도, 다문화수용성,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요인에서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함.
- 먼저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을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이 어떠한 궤적으로 변화하는지 모형비교를 통해 엄밀하게 추정함.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양상이 일반청소년의 발달 양상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체계적인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수행함.

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비교

-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양상이 서로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추이는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에 상반된 변화를 갖는 분할된 양상을 따르며, 중학교 진학 이후 학습활동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2011년부터 조사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보다 1년 먼저 수집된 자료임. 이에 따라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 분석의 경우 1년 전의 동일 학년과의 비교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양계민·신현욱·박주희, 2014, p. 186).

-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수준이 점차 감소하다가 감소세가 둔화되는 U자 형태로 변화함.

■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학습활동은 조사시점에 따라 학습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정 집단의 우세나 열세를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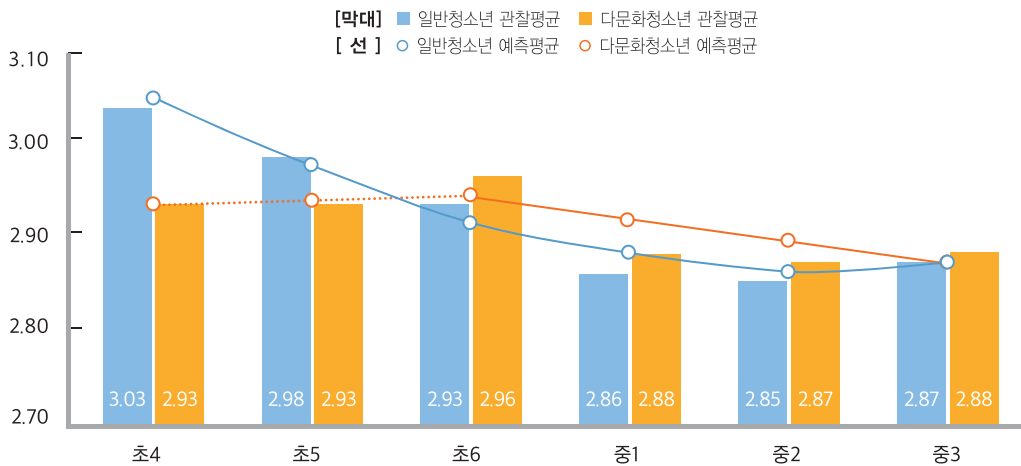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비교

3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 비교

■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를 추정한 결과 서로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는 학교급에 따라 그 추이가 달라지는 분할된 변화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평균적인 뚜렷한 흐름은 발견되지 않음.
-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는 U자 형태의 이차함수 변화로서 시간에 따라 교사관계 수준이 감소하다가 그 감소세가 둔화되며 오히려 중학교 시기에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냄.

■ 학습활동과 마찬가지로 교사관계에서도 조사시점에 따라 교사관계 수준이 높은 집단이 다르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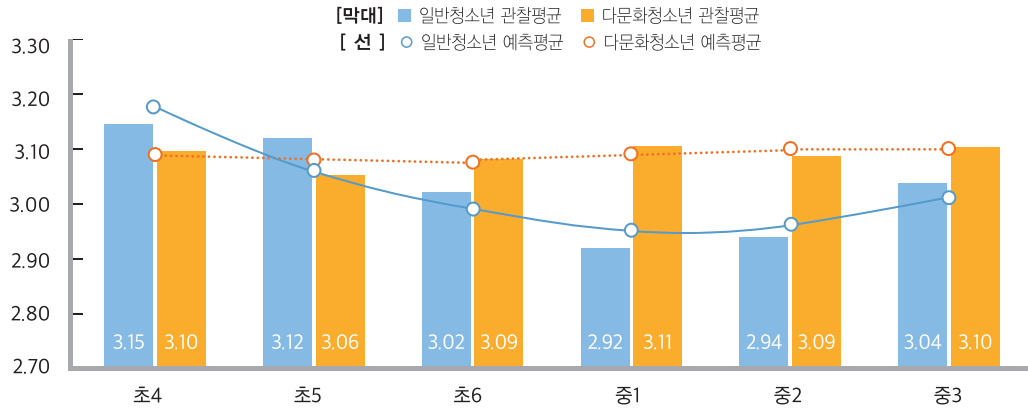


그림 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 비교

4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 비교

■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를 추정한 결과 집단 간 발달 추이가 서로 동일한 것으로 판명됨.

-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에서 역-U자의 이차함수 형태로서 시간에 따라 증가하다가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공통적인 양상이 나타남.
- 각 집단의 변화 모형에서 도출된 계수를 비교한 결과,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즉, 교우관계 변화에서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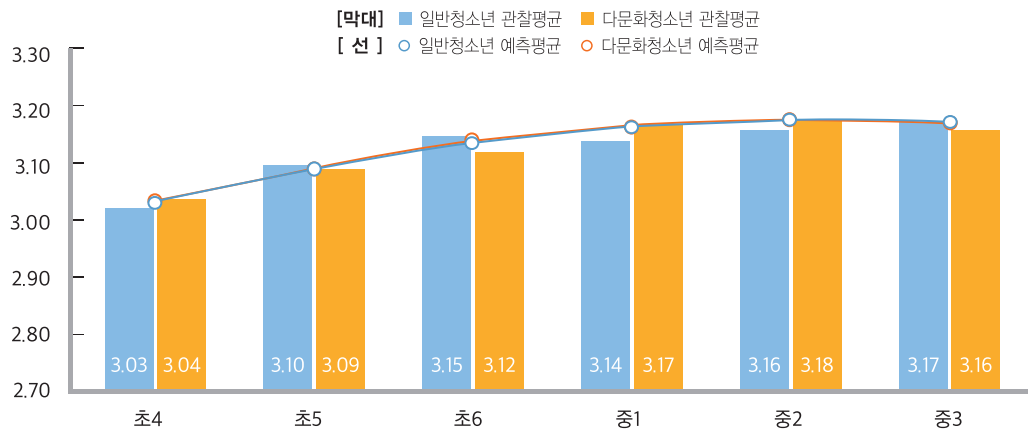


그림 3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 비교

5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비교

■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는 공통적으로 학교급에 따라 변화가 다른 분할된 변화 궤적을 나타냄. 다만 중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는 다문화청소년 집단에서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남.

-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에 변화율이 다른 분할함수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집단에서 도출된 계수를 비교한 결과, 초기치는 동일하였으나 변화율의 크기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중학교 시기에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감소경향이 다문화청소년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이 중학교 시기에 겪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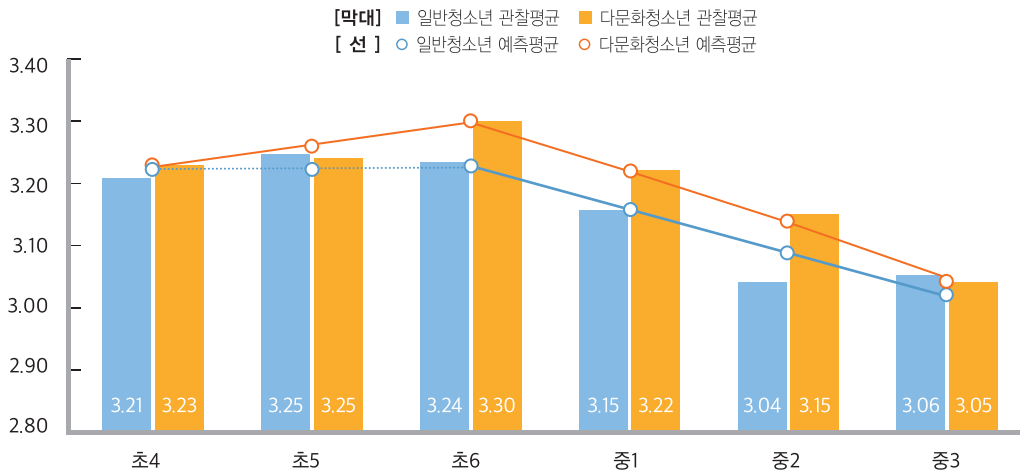


그림 4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비교

6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변화 비교

-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서로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증가하다가 점차 증가폭이 감소하는 역-U자 형태의 변화 양상을 나타냄.
 - 일반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 다문화수용성이 감소하다가 중학교 이후 증가하는 분할된 변화 양상을 나타냄.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보다 모든 시점(초4~중3)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의 변화 궤적을 고려해볼 때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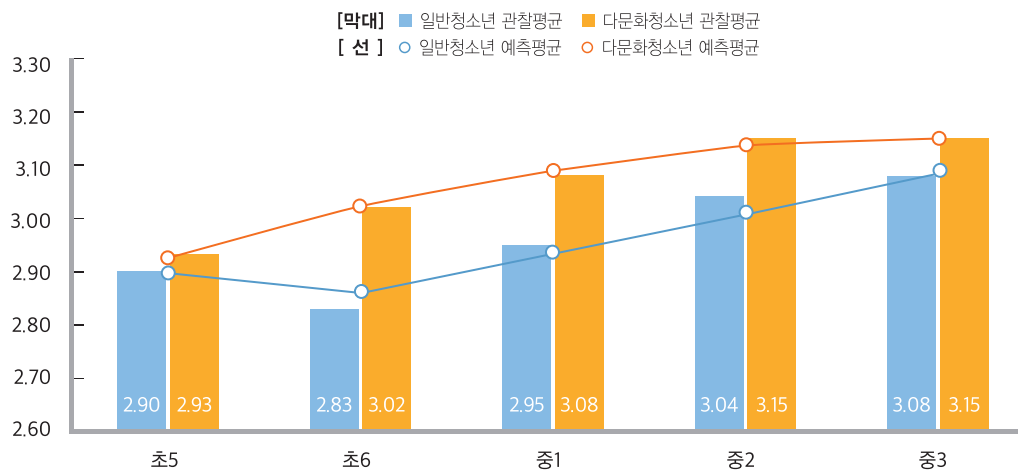


그림 5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변화 비교

7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비교

■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됨.

-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이 증가하다가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역-U자 형태의 변화 추이를 나타냄.
- 일반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는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이 증가하다가 중학교 진학 이후에는 감소하는 분할된 양상을 나타냄.

■ 다문화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모든 시점(초4~중3)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중학교 시기에 그 격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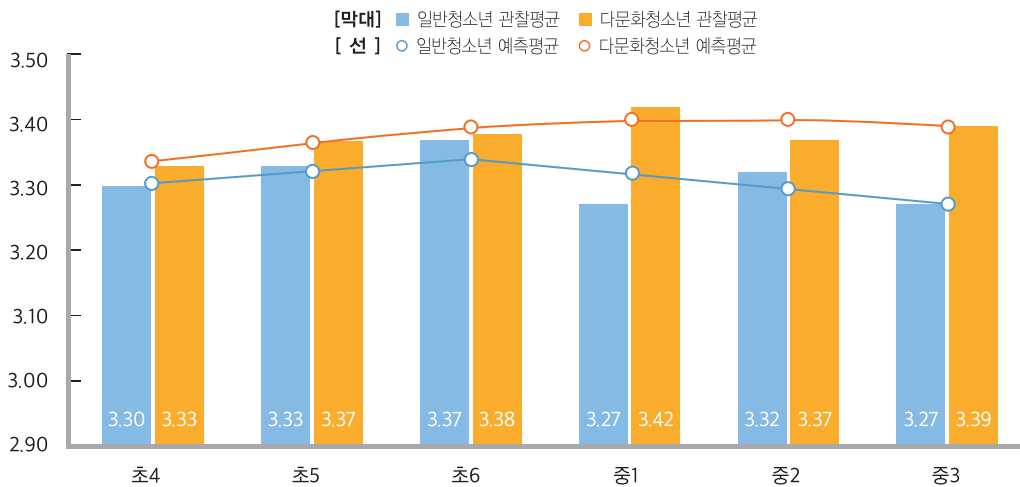


그림 6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비교

8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다수의 발달 요인에서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 간의 변화 추이에 차이가 있었으나, 특정 집단의 일방적인 우세나 열세가 나타나지는 않음.
 - 학습활동의 경우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변화 모형이 상이하였으며, 조사시점에 따라 학습 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이 다르게 나타나 특정 집단의 우위를 논의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교사관계, 다문화수용성,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도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변화 모형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남.
 - 교우관계는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변화 추이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의 경우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변화 형태는 동일하였으나, 중학교 시기에 삶의 만족도 감소 경향은 다문화청소년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
-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결핍된 존재로서 평가하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재고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 지원 방안이 요구됨.